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 행동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 신년 메시지

넘치는 은혜의 강



박노철 목사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올 한 해는 어둡기만 합니다.
3% 채 되지 않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국의 경제위기, 유럽연합의 재정 몰락, 일본의 독도 침략의 야욕(野慾)과 중국과 일본의 전쟁도 불사할 듯한 영토분쟁, 등등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며 성경의 관점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처럼 성전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제단을 통해 지나가며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차며 결국은 그 누구라도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 그 은혜의 강이 닿는 곳곳마다 울창한 숲들이 세워지고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듯이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강물이 넘쳐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치유와 변화,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직 마음을 담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며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합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뤄질 수 있는 역사입니다.
첫 사랑과 첫 헌신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강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3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노문환 장로 (당회 서기)



해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때에는 늘 후회스러움과 아쉬움으로 안타까워하며 새로운 한 해를 또 기억하곤 합니다. 이러한 일을 올해에는 반복하지 않도록 실천에 옮기기 쉬운 작은일 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날 때에 의례적인 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진정을 담은 반가운 인사를 서로 교환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형제에 대한 작은 사랑의 마음들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선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서로의 사정을 깊이 알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지들을 많이 만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허물은 드러내지 않고 감싸주며 서로의 아픔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며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아뢰는 참으로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속 늘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끼리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을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도 조금씩 드러남으로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어 그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일 부터 하나하나 사랑을 실천하여 점점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어 가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

오정수 장로 (기획위원회)



2013년은 우리 서울교회가 또 다른 의미로 큰 도약의 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획위원회는 2013년을 준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를 받은 서울교회는 한국교회를 바른 신앙 가운데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획위원회는 2013년 한 해도 담임목사님의 목회를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각 위원회가 서로 돕고, 협력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모든 부서와 기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후 평가를 통해 반복 되는 시행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은 자가 구할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순종만 있다면 아마도 서울교회는 온전한 기쁨과 감사만 존재할 것입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예배를 최우선의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연합과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2013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위원장의 제언

서문석 장로 (예배위원회)



예배는 언제나 의식으로 표현되었고, 상징적인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역사 하신 은혜로운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그에게 표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은 의식과 상징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합니다. 그러한 표현의 중심적인 도구가 바로 예배의 기본 요소로 예배 인도자, 설교자, 기도 인도자, 찬양대원, 헌금수장자, 안내자로 이 모두는 예배에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은 각각의 역할이 진지하고 신중하고 감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품위있는 행위로 회중의 마음이 일치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균형이 깨어지는 모습은 예배 드리는 회중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즉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성도들이 그러하며, 일찍 예배 공간을 떠나는 성도들이 다 이에 해당됩니다. 예배는 정한 시간에 시작되면 일제히 문을 닫고 온 회중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2013년도에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대화를 통하여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며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연습량의 확보를 통한 질적 향상과 양적 부흥에 힘 쏟는 해

박정선 장로(찬양위원회)



찬양(Praise)은 하나님을 경험한 구원 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진리이며 찬양드릴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

여 칭찬하는 것이 곧 찬양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섭리사역에 대한 응답으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참된 경건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며 찬양 받으시기를 좋아 하십니다(시 22:3). 또한 하나님은 찬양과 찬양대를 통해 임재 가운데 통로로 사용 하십니다. 찬양대원은 하나님의 노래하는 제사장으로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입니다. 이토록 막중하고도 소중한 직분을 완수하는 의미로 올해에는 모든 찬양대가 주중 연습을 통한 연습량 확보를 통해 찬양대원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해가 되려고 합니다.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였다”고 합니다(역대상 9:33).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을 완성하기 위하여 맡은 직분에 전념하여야 최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서울교회 각 찬양대의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 되고, “은혜의 찬양”이 되며 “거룩한 찬양” “능력의 찬양”이 되도록 온 찬양대가 힘쓸 것입니다. 한편 찬양대원의 양적 부흥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교회의 유초등부 찬양대로부터 은빛 찬양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교회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 받는 서울 교회 찬양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교회의 미래와 교회교육

홍성주 장로 (교육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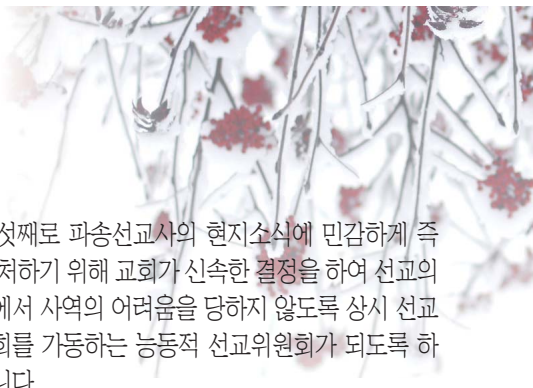
2013년은 그동안 가족 예배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유년부와 초등부, 중등부와 고등부가 또래들끼리 함께 모여 전담 교역자를 모시고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역시 젊은이 예배부를 증설하여 서울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열정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준비된 교사와 교육기 자재와 교육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울교회는 맡겨진 학생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 주시는 550여분의 교사들이 계시고 부서별 예배와 집회를 위한 교육기 자재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7층에 있는 집회실을 어린이들의 분위기에 맞추어 리모델링하여 교육적 환경을 바꾸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교회 교육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중에도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 활동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실시되는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이 1기 수업을 마치고 3월부터 2기 수

, 위원장에게 듣는다



업을 개학하려고 준비 중이며 3~5세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꿈나무 놀이 교실도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 교회의 미래는 교회학교의 부흥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나침반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서울 교회가 되려면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락방의 활성화로 건강한 교회공동체가 되기를

임상현 장로 (교구위원회)

주님의 몸된 교회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는 몸의 각 세포에 해당하는 여러 교구와 이에 속한 각 다락방의 건강한 성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여러 성도들이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다락방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교구위원회를 비롯 여러 교구 일꾼들은 세포조직 최끝단까지 원활한 혈액순환과 활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져 건강하고도 생명력 있는 유기체적 교회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수시로 개최되는 교구위원회와 매주 갖게 되는 부교구장 모임을 통하여 실질상 담임목회 3년차에 들어서는 담임목사님의 목회방침이 일선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아울러 일선 성도들의 여러 좋은 의견들이 담임목사님의 목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실한 교구간사들과 다락방 리더들은 여러 성도들과 교회 사이의 충실한 가교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저희 교구위원회 사역으로 올해에도 서울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새가족들이 4주간의 정착과정을 수료한 후 정식교인으로 등록될 때 담임목사님의 초청으로 다락방장과 함께 오찬에 참여하는 모임을 통하여 새가족들이 소속 다락방에 효과적으로 정착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 개별 다락방들이 작은 서울교회로서 제각기 교회 전체목표인 선교와 교육과 구제의 한축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사역모형을 계속 연구, 개발, 독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교구 구성원들의 단결과 연합을 위한 교구특별찬양, 사랑나눔을 위한 바자 행사는 물론 교구 내의 여러 성도들 중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장년성도들이나 유아세례만 받은 후 아직 입교를 하지 아니한 다음 세대들을 발굴하여 이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항상 전도의 동기를 찾아 영혼 구원을

김영준 장로 (전도위원회)



주님께서 마가복음 16:15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하셨듯이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사명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말씀도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양육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때까지 설득력있게 공감하며 조건없는 사랑으로 마음을 열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심이므로 전도에 대한 소명 의식과 열망으로 결실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기를 힘쓰고 항상 전도의 동기를 찾으며 영혼구원을 위해 쉬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 안에서 신실함으로 남선교회, 여전도회, 침신인 전도대등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협력과 헌신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선교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재촉해야

이영기 장로 (선교위원회)



교회창립 22년으로 접어드는 서울교회가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졌으므로 금년부터는 세계선교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다시 재촉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첫째로 저희 서울교회는 국내, 외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2013년도에 한 가족 한 선교사 후원 운동이 어린 유치부 아이에서부터 장년부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의 가정에서 다시 일어나고 온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금년부터는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세계 각 지역에 파송된 선교사를 위한 기도팀원으로 모두 동참하여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25개 기도팀의 기도팀원을 계속 확충하고 기도팀원들을 모든 교회학교로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선교사 파송의 확대와 현지선교사의 지속적인 발굴로 미자립 세계교회의 영역확장과 구원받지 못한 세계 도처의 백성들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파송선교사의 현지소식에 민감하게 즉시 대처하기 위해 교회가 신속한 결정을 하여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상시 선교위원회를 가동하는 능동적 선교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선교위원들의 매주 주간기도회를 정례화하여 선교사를 위한 기도에 솔선수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교사역을 잘 점검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세계선교를 향 도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선교사 100명 파송 비전을 속히 이루어내는 2013년이 되길 바라며, 2020년대를 향한 선교사 1000명 파송이 서울교회의 새로운 세계선교의 비전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어둔 곳에 빛을 비추는

최학인 장로 (구제위원회)



우리 서울교회 규정에 의하면 '구제위원회는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 받아서 우리의 힘과 정성을 모아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으로 대내외의 구제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교회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교회 규정이 아니고도 예수님께서서는 억눌리고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으며 제자가 많아졌을 때 헬라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져 히브리과 사람을 원망하므로 사도들은 일곱 집사를 택하여 구제에 전념케 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구제는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더욱 복음전파가 왕성해 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곳에 조금이라도 빛을 비추이는 구제의 손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구제를 위해서 많은 참여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신용식 장로 (재정위원회)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



2013년 1학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1월 16일(수) / 수여식: 2월 3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하영수 장로)는 2013년 1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추천을 오늘부터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 특기자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교회 등록된 지 1년 이상(특기자는 6개월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 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1월16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http://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썸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겸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징표가 나타납니다. 남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고 관대하고 긍정적 입니다. 삶이 안정적이고 차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로인해 구원과 영생과 축복의 영적인 복이 다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해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질병, 슬픔과 아픔도 주십니다. 기쁨과 행복도 주십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2013년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헌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헌신의 크기는 주님 사랑의 크기와 같습니다. 헌신의 수준은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과 정비례 합니다.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헌신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의 축복과 드림의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 확정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마 25:40, 레 19:18)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013년 2.24(주일)~26(화)	서울교회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됩시다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작은 이들의 친구	박다형 전도사
유년부			나는 좋은 친구입니다!	김안성 목사
초등부			작은 이들의 친구가 됩시다	최민혁 전도사
중등부	2013년 1.24(목)~26(토)	아가페타운	내 양을 먹이라	박노철 목사 노정호 목사
고등부	2013년 1.17(목)~19(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박노철 목사 이종진 목사
사랑부	2013년 2.17(주일)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한상은 목사
청년1부 (대학부)	2013년 2.1(금)~2.2(토)	아가페타운	So One(소원)	박노철 목사 허승일 전도사
청년2부	2013년 2.1(금)~2.2(토)	아가페타운	So One(소원)	박노철 목사 오세광 목사
청년3부	2013년 2.1(금)~2.2(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박노철 목사 정수길 목사
디아스포라	2013년 1.25(금)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박노철 목사 서명철 목사
에바다	2013년 1.26(토)	서울교회	작은 자들의 벗이 되자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013년 2.16(토)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한상은 목사

질서와 양보로서

이관규 장로(관리위원회)



지금까지 서울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슨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좋은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서와 청결로서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질서있는 주차 생활과 쓰고 난 휴지 한 장까지도 휴지통에 버리는 일, 엘리베이터 타는 일도 질서와 양보로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정식 장로(건축위원회)



예배당을 소망하던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며 물질적으로 또는 각자의 시간을 내어 모두 헌신한 끝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서울 교회는 지금 우리만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여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 생명들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아끼며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교회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 받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실 자기 자신과 우리의 교회 위해 늘 기도하며 준비되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그동안 연말정산 자료를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발급 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올해부터 교회메일로 신청서를 접수 받고 신청한 성도들의 메일로 회신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보내게 되었다. 단, 메일사용이 어려우신 성도들은 기존에 신청하던 방법대로 하면 된다.

- E-mail : sc5581106@gmail.com
- 작성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④주소 ⑤가족합산여부
- 문의전화 : 558-1106, 2193-8811
- 담당 : 소윤경 집사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 교사 모집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에서는 교사로 함께 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 대상 : 세례교인, 어린이를 사랑하고 성실한 분
- 수업 시간 : 3-6월 / 9-12월 학기 중 토요일 오전 9:30-12:30
- 하는 일 : 반 어린이들의 수업 참여를 북돋으며 격려해 주기
- 혜택 : 좋은나무성품학교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월 1회 무료 수강
- 교사지원서 비치 및 제출 : 1층 사무국 (문의 : 지도목사 김안성 010-8829-7818)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다음 글은 한국장로신문에 게재 된 칼럼 전문이다. (편집자주)

존경하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당선인님!
경쟁사회에서 내 능력과 자질이 남보다 뛰어나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오관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투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기에는 우리는 진심으로 존경과 축하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바램을 적어봅니다.

첫째, 초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사랑과 존경의 겸손과 자기희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무릎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 백성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회정의를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란 잘못된 행동에 대한 형벌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성경은 정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칫 포퓰리즘에 빠진 복지정책은 오늘날 남유럽국가들이 보여준대로 국가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도자들의 이타심과 자기희생이 없는 복지사업은 국민 세금을 갖고 자기 명분만 쫓는 파렴치한 지도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적을수록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사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법과 질서가 정착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을 만들어 질서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법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어려움도 있지만 공평하게만

지켜진다면 법은 질서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제가끔 바쁘다는 핑계로 신호등을 무시하거나 운 동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사회를 혼란과 폭력의 사회로 만들뿐 아무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기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서 출발하여 문화주의에로 발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적용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법을 사회 안 녕과 질서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어느 개인이나 소수 집단만을 위한 것이냐를 물어야 할 것이고, 또 세워진 법이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들을 수 있는 귀와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축구경기를 해설하는 분 같은 이들이 우리나라에 11분만 있다면 월드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론을 실제 경기에서 그들이 수행할 수 없다 해서 그들의 고언을 무시하거나 없애버리면 세상엔 발전도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여기저기서 해설자 역할을 하는 이들의 쓴소리를 들을 때마다 겸손히 경청할 수 있는 귀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민족 국가의 장래가 밝고 힘찬 전진이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참된 애국심을 갖고 국가안보에 우선권을 두시길 바랍니다.

국격을 높이고 부강하고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등 각 분야가 균형있게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입은 대통령은 자기 소신이나 정감을 수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뜻을 찾아 국가를 경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움 받은 이는 마땅히 무릎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는 신앙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책임에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열된 조국을 통일시키는 업적을 쌓아보겠다는 노력도 가상(嘉尙)하거니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잡혀 역사를 왜곡하거나 포퓰리즘은 국민통합이나 쇄신을 가져오는 일에 방해가 될 뿐일 것입니다. 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그리고 분명한 안보의식을 갖고 자손만대가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의 벽돌 한 장을 쌓는 일에 쓰임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평화에 공헌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60만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군인들이 정예화한 무력훈련뿐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가진 정신무장과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신앙을 갖춘 영적으로 준비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1인 한 종교갓가지 즉 전군신자화운동을 추진하실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안심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자유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일조국을 이룩하시는 성군(聖君) 다윗같은 대통령이 되시기를 염두에 기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불비례합니다.

이중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서울장신대 석좌교수,
서울교회 원로목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2013 송구영신예배

사진 : 손동혁 집사(편집부)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당회원 일동

신년 감사 예배

**성찬식 :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공동의회 : 찬양예배 후**

2013년 신년 첫 주일인 오늘 우리교회는 신년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출발 감사하며 신년 첫 성찬식을 거행한다. 찬양예배 후 합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여 은혜 충만한 예 ·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열린다. 등 2013년 되기를 소망한다. 록된 세례교인은 모두 참여 바란다.

새해에 변화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와 교육 오늘부터 교육1국은 교회학교별로 예배 드린다

2013년 부터 우리교회에서 달라지는 것 중 가장 큰 사항은 각 교회학교별 예배의 부활이다. 오늘 부터 교육 1국은 교회학교별로 예배 드리며 오늘은 성찬식 관계로 중 · 고등부, 청년부는 주일1부 연합 예배에 참석하고 다음 주 부터 중 · 고등부, 청년부 도 교회학교별로 자체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착오가 없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요일/시간	장소
유년부	주일 오전9시	701호
초등부	주일 오전9시	601호
중등부	주일 오전9시	501호
고등부	주일 오전9시	101호
청년1부	주일 오후1시30분	101호
청년2부	주일 오후1시30분	101호
청년3부	주일 오후1시30분	101호

기록물 제출 공고

교회는 지난 한 해 작성된 각종 기록물들을 제출받는다. 당회 이하 모든 부서의 서거나 기록담당자는 2012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예배일지 및 회의록, 출석부, 보고서, 주보, 인쇄물, 주요 사진 등 각종 기록물을 1월말까지 순례자실(704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또 2011년 이전 과거 기록물도 보관중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주시 바란다. 컴퓨터 파일인 경우엔 서울교회 홈페이지내에 "기록물 보관실"로 파일을 올려주시 바란다. 파일 제목에는 부서명과 기록물명, 담당자명을 써주시 바란다. (예: 초등부 회의록 홍길동) 제출하신 자료들은 교회내 역사자료실에서 정리해 영구 보존할 예정이다.

(담당: 김민철 집사, 최영철 집사, 허숙 권사)

강남교회 신년하례식

서울강남교회 신년하례식이 1월9일(수) 오전 7시 서울교회에서 모인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7일(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참가한다. 9일(수) 한국로잔위 총회에 참가한다.
- 사임 : 디아스포라부 지도 박광일 목사와 영어예배부 지도 Steven Martinlich 목사는 2012년12월31일 개인사정으로 각각 사임하였다. 영어예배부는 임시로 김다니엘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가 지도한다.
- 신동기 권사(12교구)의 시 '형형(炯炯)한레이니어들' 가 미주 한 국일보 신년특집호에 실렸다.
- 천정윤집사(12교구)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 득녀 : 2교구 정인식 나수정 성도가정 5교구 정승용 최정희 집사 가정
- 주권식당행사: 제1권사회(1.6) 제2권사회(1.13)
- 금주의 식사: 한중호 집사 김미혜 집사 가정 한중우 집사 황노전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 및 청지기 수련회

**주제 :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골1:6)
1월 7일(월) ~ 12일(토) / 새벽 5시**

구분	1/7(월)	1/8(화)	1/9(수)	1/10(목)	1/11(금)	1/12(토)
05:00 - 05:45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 (청지기수련회)* (설교: 박노철 목사)					
05:50 - 06:15	교구일꾼의 역할 (정수길 목사)	교회학교 교육과 운영 (황 광 목사)	예배위원 및 찬양대원의 역할과 자세 (장석남 목사) (유문건 목사)	전도위원의 역할과 전도전략 (한상은 목사/배경애 전도사)	2013 선교일꾼의 자세 (장석남 목사)	섬김을 통한 교회봉사 (서명철 목사)
대상	교구위원회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기타 섬김위원

201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일이다. 이번에는 특별히 복음의 능력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복음의 능력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기도회 후에 위원회 별로 101호실에서 청지기 훈련을 갖는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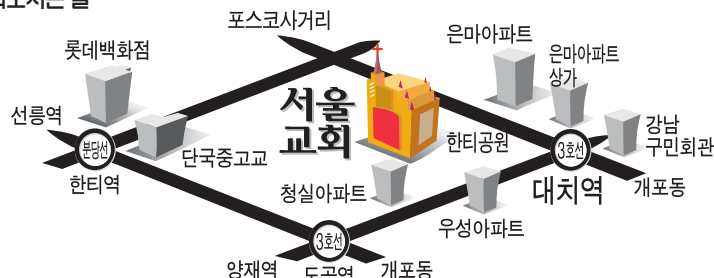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013년도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몸 된 서울교회 제단을 통해 흐르는 은혜의 강이 큰 강을 이루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1/7일(월)~12일(토)에 있는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며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 새해에 변화되는 다음세대를 위한 예배와 교육을 통해 성령의 기쁨부으심의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